

# 모두가 당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 13면에서 계속

라던 지금 손도 대 볼 수 없으니만큼 앞으로 다가와요. 목전에 있다고.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났거나 급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부터 알고 계발하기에 얼마나 급급하나 이 소립니다. 지금 시대에는 말, 육체 이걸로써 해 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몸은 가만히 두고 정신력으로서 마음을 조절하고 들고 낼 수 있어야만이 스스로서 움직여지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걸 다 아시기 바랍니다.

### 유체이탈에 대해서

**문** 제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낮에 좀 자려고 누워 있다가 '일어나야지' 하면 제가 육신을 땅에 있는데 천장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일어나야지' 하면 분명히 내 육신은 그대로 있었는데 내 발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왜 너만 일어나

말입니다. 이게 어디라도 갈 데가 있어야, 가계끔 정립이 돼야 아주 거침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거지, 가계끔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괜히 당신 마음이 그걸 가지고 농락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또 나쁜 거는 좋게 해결을 하고 또 안 되는 거는 되게 하는 거고, 또 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바뀌어 나오는 거라도 걸리지 말고 그것이 한 군데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하니까, 일체가 다 한 군데서 나오지 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악도 선도 한 군데서 나오지 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 구멍에서 나올 진면 좋은 게로 바뀌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구멍이 아니라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악도 선도 맘대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있으니까 모든 게 있는 거지 없다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당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눈이 바로 나의 근원처에서 그렇게 한다는

아날 가망이, 새책이 또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문이 좀 열린다 이 소리죠, 그게. 그걸 왜 부모에다 들이대고 뭐가 안돼도 조상의 탓으로 자꾸 돌리세요? 자기 조상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은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의 모습으로 화해서 보여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시도 꿈이고 꿈도 생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것도 꿈이요, 꿈에 가르치는 것도 꿈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다 생시다 할 게 없이 그런 꿈이 깨지면 재사 지낼 걱정 하지 말고요, '아하! 이게 나의 체적이로구나. 아, 이제 두 분 다, 자기와 자기가 다 죽었으니까, 둘 다 함께 죽었으니까 문이 좀 열리게 되나 보다.' 하고, '아휴!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 마음 편안하게만 살면 되는지?

**문** 예전에 교수 임용 건으로 찾아뵈었을 때 제 편에는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지 않아서 솔직히 처음에는 스님을 원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이상과 아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스님, 이렇게 모든 것을 내 근원에 맡겨 놓고 편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답** 누구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런데 맥이 교수 자리가 나서서 좀 앉아서 참 힘들다고 그랬죠? 그거를 더럭 부쳐넘겨서 해 줬어 봐요. 맥이 지금 셋은이라고 떠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겠나.

하여튼 사람마다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극치적으로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모두 좀 너그럽게 하시고요. 인생이란 율이예요. 한 율! 우리가 인생 한 율을 그냥 아주 급급하게 살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데, 또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는 것과 같이, 또 그렇게 급급하게 살지 마시고 망망대해에 가다가 빠져 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든,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이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몽땅 그냥 맡기고 편리하게 놓으세요, 그냥.

그저 라면 한 그릇 먹으나 밥 한 그릇을 먹으나 하루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그래요, 밥을 한 그릇 떠다 주나 늘음밥을 반 그릇 갖다 주나 나 먹기는 똑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별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해 먹자, 더 좀 맛있는 거 해 먹자 이라는 마음이 파란을 일으켜요. 그냥 생기면 생긴 대로,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대로, 또 가만 가는 것 잡지도 말고 오는 것 막지도 말

고, 생긴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물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만물만생이 다 물속에서 살아도 다 그저 집이 돼 주면서 끝없이 유유히 흘러가는 나를 보고 살아라. 나 같이만 살면 뭐가 걱정이나?' 하죠. 산은 산대로 나 같이만 살라고 그래요. 똑똑히. 그러다보면 뭐가 걱정이에요. 한 철 날 놔의 거, 한 철 동안 공부하는 게 세세생생으로 돌아가고, 세세생생에 돌아가는 그 자리의 권한으로 먼저 자신 위의 조상들도 다 건질 수가 있고 아래의 자식들도 다 건질 수가 있거든요.

### 너무나 급박하고 답답해요!

**문** 처음에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환희로웠는데 지금은 제 앞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어둠처럼 모든 것이 차단된 느낌입니다. 평탄대로의 길처럼 모든 게 원만했던 사업도 질벽을 만난 듯 가로막히고 연로하시기는 했지만 정정하셨던 어머니님도 병원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도 만들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빠져 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색(色)으로만 생각하고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죽겠으니까 내가 어떡하든지 빠져 나가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나 그걸 보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빠져나가려면 저런 창문이 문인 줄 알고 그냥 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급박할 때 모든 걸 다 맡겨 놓는 그런 그것이 바로 내 대로를, 이 벽도 붓장도 다 없이 그냥 확 뚫어 버리는 그러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율페부듯 못하게 됐을 때 말입니다. 사람이 가난치 않고 돈 있고, 친구들 많고 아, 내가 그동안 모든 게 풍족하던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고논의 거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쫓세요!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그냥 딱 쫓이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율페부듯

## 일체가 다 한 군데서 나오지 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 그리고 다시 누워서 육신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때도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벽을 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답** 그래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닌 가운데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총 종합된 한 몸의 기동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무엇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립리지 말고 속지 마세요. 모두 그논한테서 화(化)해서 바뀌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석존께서도 6년을 고행하셨던 때 어떠한 문제가 그림자같이 나와도, 화해서 나오고 미녀로 나오고 이래도 그녀는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항복받았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떠한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고 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지금도 그렇게 나고 들고 하죠.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저 미국으로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바로 빛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여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나왔다고 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니까!' 하고 거기 다 놓았을 때, 또 그렇게 어디로 나가 봤으면 하지도 말고 들어가 봤으면 하지도 말고 '너니까 나를 가르치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고

것을 그대로 믿고서서 그 자리에 다시 놓고 열심히 생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천도재를 지내야 하는지?

**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작년쯤부터 어느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또 자꾸 보고 있고, 그러다 어느 날은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꿈에 그림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15년 가까이 자주 꿈꿔져서 자꾸 관하는데도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재사를 지내야 해결이 날는지요?

**답** 맥이 형성되기 전은, 바로 전에 살던 자기 조상이죠. 그것은 아버지(父)가 되죠. 그리고 지금 사는 모습으로서의 당신은 바로 자(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 겁니다. 내가 항상 '죽어야 너를 본다' 이러죠? 그럼 그거를 한번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공한 도리를 알면 죽는 것이다' 라는 거요. 또 어머니가 죽었다 이랬죠? 어머니가 죽는 거는, 하늘과 땅이 전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생(生)하죠.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다 그랬죠? 다 돌아가셨으니까 천(天)·지(地)·인(人)이 그대로 다 죽었으니 자기는 살

## 공부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오직 한 군데서 나온 거니까 속지 마세요!

에 임원해 계시고 모든 게 급박하고 율페부듯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계도 저의 근본에서 나온 것이지요?

**답** 세상은 뛰어가는 것도 없고 안 뛰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퐁퐁뽀뽀 걸어요. 그것이 바로 율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와 같다는 얘기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씩 생각하지 말고 항상 아주 율두율미하게 내가 믿는 동시에, 그냥 그대로 율을 쓰면 정면에서 쏘아지 설 봤다가 그쪽에서 오히려 도로 살아 들어오면 내가 맞아 죽어! 그와 똑같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압상하고 천차만별로 변질이 되고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그렇게 생각도 하고, 사람이 착상하고 괴롭고 고통하고 가난하고 이런 다른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공부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것을 모조리 그냥 놓는 겁니다. 일체 만법을 확보해 돌아갈 수 있는 그 근원에다가, 근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원에다 다 놓는 겁니다. 맡겨 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아주 급박할 때 내가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급박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바로 어떻게 빠져 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자기 주인공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

못하게 해 봤을 때, 요것이 흘러 꺾메기를 벗고서 우두 바깥을 벗고 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그 꺾메길 쓰고 꺾메기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나 그걸 보게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참 묘하죠, 모두가.

그렇게 되면 언제나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모든 생활에 빚빚한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 같고 그렇지만 나의 주인은 몇몇하고 도도하기에 그 자기를 그렇게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같이 도도하게 흐르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득을 못하면 '아하! 이걸 내가 이렇게 되니까 아이구, 아이구...'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아하! 여기서 그러는구나. 그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죽든 나가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가난해서 죽든 나한테 아랑곳없다. 내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봤을 때에 비로소 주인이자 나를 끌고 다니는 시자가 되니, 이 몸뚱이는 시자라 그랬는데 고만 마음이 주인이자 시자거든. 시자이자 주인이고, 아, 이게 틀이 아니예요. 처음에는 배울 때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바로 자기 시자이자 주인공이자 부처이자 자유인입니다.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알 바가 생길 것입니다.

#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며"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 Health Belt

★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 ▶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 ▶ 식약청 의료용 전자발열기 : A83060호
- ▶ 전기용품 안전 인증 : HH07236-5004A호
- ▶ 전자파 장애실험별 전자파 환경인증
- ▶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정신공신인증

배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날씨가 더울수록 배는 더 차가워 집니다

###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불지님 안녕하세요. 건강재미 금강약돌입니다. 다년간 건강 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 복한에서 소량만이 생산되는 복한 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을 발산시켜 착용시 복부(오장육부) 깊숙히 강력한 복사에너지와 원적외선을 전달하여 찜찜하고 열침을 갖는 효과가 있으며, 체내의 노폐물 배출과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어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치료에 온열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암 등의 치료에도 온열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에 상응되는 의료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건립선, 피부염, 복부지방 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 및 혈액순환개선, 신우조리, 스트레스 증상, 숙취 등에 효과적이며, 특히 임예빈과 전이예빈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례 스님 불지님을 깨서도 온열복대 착용 후 많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온열복대와 유사제품의 비교 ■■■		
비교내용	금강약돌 온열복대	유사품(세리온, 맥반석 등)
전기열선온도	95-100℃	70℃ 미만
접촉면적	1시간이내 70-80℃, 1시간후 80℃ 유지	50℃ 미만
원적외선	광출력 40% 이상 99%, 50% 이상 99% 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가파를 내며, 900nm 이상 경우는 인체의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음으로 포괄되어 있다.	광출력 40% 이상 방사량이 90% 이상 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가파를 내며, 900nm 이상 경우는 인체의 피부를 오해의 빗기게 한다.
음이온	10당 1000-1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일반 10당 500개의 음이온을 낸다.

**지매품**

금강약돌 온열 심매조끼



금강약돌 온열 죽은기



금강약돌 열스쿠션



금강약돌 건강매트



문의전화 : 금강약돌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